나의 완벽한 계획

송아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활의 스며든지 벌써 10 개월 남짓의 시간이 흘렀다. 작년에는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1년 비슷한 시간을 땅 바닥에 내다버릴 것이라고 상상은 했을까? 코로나 바이러스 한국 확진자가 처음 나왔을 무렵에 난 금방 상황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원래대로 되돌아올 줄 알았다. 사스 때도 그렇고 잘 이겨냈었던 전적이 있었기에 말이다. 하지만 금방 끝난다는 건 정말 어림도 없는 소리였다. 그 많던 마스크가 동나기 시작 했고, 개학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었던 나는 8월까지 등교를 못했다. 집 밖에 못 나가고 집에만 콕 박혀있을 땐 소소함이 주는 행복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생활 속의 익숙함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정말 탈도 많았고 눈물도 많았고 웃음도 많았던 꽃 같았던 내 중학교 1학년 생활이 막을 내린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난 2학년 생활을 어떻게 하면 끝내주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걸 온갖 방법을 통해 연구 중이었다. 2학년이 되고나서 4월 달쯤에 가는 1박 2일 수련회를 겨울방학 때 생각 중이었으니까 말 다 했다. 그 밖에도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해야 전교권에서 놀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좋아하는 아이돌 콘서트에서 신나게 응원하고 있는 상상, 2학년 때 친해진 아이들이랑 롯데월드나 에버랜드와 같은 놀이공원에서 신나게 노는 계획 등등... 작년이었다면 충분히 가능했을법한 흔한 계획이지만 올해는 터무니없는 계획이 되어버렸다. 해외여행은 바라지도 않았다. 모든 버킷리스트 계획을 실행조차 하지 못했다. 매주 친구들과 놀러 갔었던 부평도 못 나가게 되자 드라마 속 비련의 여주인공에 빙의된 것처럼 절망에 휩싸여버렸다. 안 그래도 중2, 흔히들 말하는 중2 병이 올 시기인데 말이다. 코로나 블루 현상처럼 상실감에 우울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심각했던 건 금세 나태해져서 몇 개월을 우왕좌왕하며 휘리릭 날려버린 거다. 밖에서 운동도 잘 안 하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등교도 안 하고 온라인 수업만 계속 하니까 누워서 출석체크하며 먹고 자고 해서 살은 당연지사 기하급수적으로 쪄버렸다. 지금처럼 정신 차리고 전처럼 사람답게 살게 된 것도 몇 달 안 되었다. 그 전까진 완전 폐인 그 자체였다.

폐인 같이 살았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아마 8월 달 중반쯤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계속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살다가『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만화영화에 나오는 치히로의 엄마아빠처럼 돼지가 되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 아무래도 그 영화를 본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엄마아빠가 행사 음식을 마구 먹다가 1초도 안 되어 돼지로 변해버리는데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다. 하여튼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났고, 먹던 음식을 내려놓았다. 코로나 그 자식이 뭐라고 내 소중한 인생의 1년을 손해보고 싶지 않았다. 헬스장 사장님께 죄송한 말이지만 의료진분들께서 고생고생하시면서 열심히 방역 중이신데, 사람 많고 불안한 헬스장 같은 곳은 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흔히 `홈트`라고 불리는, 집에서 동영상 보면서 언제든지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차근차근 시작했다. `몸무게에 심각한 변화!`, `하자마자 오는 효과!`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살이 더 찌는 걸 막고 몸무게 유지 정도는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살이 빠지는 효과보다 더 좋았던 건, 무엇보다도, 하나라도 노력하고 있다는 심리 덕분에 마음에 평화도 찾아오고 조급했던 마음도 전보다 차분히 가라앉게 되었다는 거다. 작년에도 안 했고 재작년에도 안 했던 명상도 해봤고, 평소에 수행평가 준비하랴 공부하랴 바빠서 못 읽었던 책들도 한번에 다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아마 14년 인생 중 이렇게 책을 많이 읽었던 건, 내 기억으로, 7살 때

유치원 안에 있는 위인집을 다 읽었던 거 말고는 없다. 비록 고등학생, 대학생 필독 도서와 같은 과학과 역사를 담은 그런 수준 높은 비문학 책은 아니지만, 재밌는 소설책 웬만한 건 거의 다 읽은 것 같다. 도서관증을 발급 받고 나서 책을 이렇게 많이 빌렸던 적도 처음이었다. 누가 나보고 어떤 방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있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난 전보다 더 나아진 내 지식수준과 작년에 나보다 지금이 심적으로 더 차분해져 있다는 것을 들먹이며 복수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내놓을 것이다. 확실히 작년만큼 활동적인 걸 못 하는 건 맞지만, 2 배속 한 것처럼 바빴던 일상이 0.7 배속 한 것처럼 천천히 돌아가면서 난 나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독해력을 얻었고, 인생책을 만났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가 되든 이 커다란 실수를 각자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수를 한 시간을 미래에서 복구할 수 있을 뿐, 결코 되돌릴 수는 없다. 시간은 앞으로도 지금도 우릴 기다려주지 않은 채 자기 할 일을 다 하며 살아갈 것이다. 우리가 시간의 속도에 맞춰 살아야한다. 코로나가 인생을 망쳤다며 절망에 빠진 채 과거에만 머문다면 그건 아주 어리석은 짓이다. 시간도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사는데 우리라고 못할 것 없다. 무너지면 다시 세우면 되는 것이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된다. 나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세상의 완벽한 계획은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계획은 고치라고 있는 것이고, 인생은 변수의 연속이니까 누가 세웠든 간에 완벽한 계획은 존재하지 못한다.

앞으로 난 부족한 내 계획으로 나만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이다. 아침에는 꼭 빵을 먹고 등교를 할 것이고, 추천 받은 추리 소설을 올해 안으로 다 읽어볼 것이며, 지금 나의 생활에 만족하며 살 것이다.

지금 여기까지 내가 이런 식으로 2020년을 살고 있다는 걸 나만의 방식으로 한번 알려보았다. 다들 코로나 바이러스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모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의료진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며 이상으로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한 내 이야기를 끝마치도록 하겠다.